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13호 【루게 제2489호】 주제 104 (2015)년 4월 23일 (목요일)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주조 무관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시며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영웅적조
선인민군장전 83권에 즈음하여 주조 무관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무관단 단장인 장평 중화인민공화
국대사관 국방부장인 22일 인민무력부장인
조선인민군 특근대장 현영철동지에게 전달하
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여러 나라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인터넷에 게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
시다》를 에스베나 안헤르출판사에서
3월 31일 단행본으로 출판
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
시다》의 전문을 12일 오스
트리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판
게 출판회가 인터넷홈페이지에
올렸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
시다》의 전문을 7일 인터넷홈페이지에
올렸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
시다》를 아프리카 프레토리아 코
페 마스터출판사에서 9일 단행본으
로 출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
시다》의 전문을 9일 인터넷홈페이지에
올렸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
시다》의 전문을 3일 인터넷홈페이지에
올렸다.

【조선중앙통신】

불세출의 위인, 걸출한 정치가

남조선 각계가 열렬히 칭송

남조선 각계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위업을 드림없이 계승하시어
사회주의강성국가 건설해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불세출의
위인, 걸출한 정치가로 높이 칭송하
고있다.

《우리 사회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김정은제1비서의 뜻은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자》를 비
롯한 로작들에 그대로 반영되어있
다고 하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천재적인 예지와 정력적인 사상리론
활동으로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혁명
사상을 발전공부해나가고계신다고
격찬하였다.

《연합뉴스》와 《KBS》, 《MBC》,
《SSB》방송을 비롯한 언론들은 공화
국이 당규약제정과 헌법수정을 통해
당의 지도 사상과 최고강령을
김일성-김정일주의,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로 정식화하였
으며 당을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당이라고 명시한것은
조선로동당과 사회주의조선이 존재하
는 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국무위원장
의 사상과 위업을 끝까지 계승하
고겠다는 의지를 밝힌것이라고 평하
였다.

부산의 한 정치인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사상의 힘,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
세우시기 위해 혁명적인 사상공포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때 대한 전투
적과업을 제시하시고 북민중을 그
실현으로 불러일으키고계신다고 칭
송하였다.

한 통일운동단체는 이북의 방방곡
곡에서 복반은 민중의 웃음과 사회
주의만세소리가 울려 퍼지고있다고
하면서 온 나라 민중을 한몸에 안아
육친의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는
다고 하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속도를 창조하여 경제강국건설
에서 눈부신 비약을 안아오고계신다
고 지적하였다.

보수언론들까지도 《이북 전사회에
혁신과 창조, 애국으로 젊음이 넘치
게 된것은 김정은제1비서님의 적극
적인 현지시찰때문일것이다.》고 전
하였다.

《연합뉴스》와 《KBS》, 《MBC》,
《SSB》방송을 비롯한 언론들은 공화
국이 당규약제정과 헌법수정을 통해
당의 지도 사상과 최고강령을
김일성-김정일주의,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로 정식화하였
으며 당을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당이라고 명시한것은
조선로동당과 사회주의조선이 존재하
는 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국무위원장
의 사상과 위업을 끝까지 계승하
고겠다는 의지를 밝힌것이라고 평하
였다.

놀래우는 기적이 일어나고있어 우리
겨레가 세기를 이어 넘겨받은 이상
국이 눈앞에 다가오고있다고 격조
를 말하였다.

언론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마
식명스키장, 미림승마구락부, 문수물
놀이장을 비롯한 수많은 대기념비적
창조물들을 일떠세우는 사업을 현지
에서 지도하시면서 사회주의강성국
가건설의 전성기를 펼쳐놓으셨다,
조선속도를 창조하여 경제강국건설
에서 눈부신 비약을 안아오고계신다
고 지적하였다.

보수언론들까지도 《이북 전사회에
혁신과 창조, 애국으로 젊음이 넘치
게 된것은 김정은제1비서님의 적극
적인 현지시찰때문일것이다.》고 전
하였다.

《김정은최고사령관의 당력과 배양,
지략은 온 세계를 경탄시키고있다.》
고 찬탄하였다.
광주의 한 교수는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국무위원장의 선군정치로 그대
로 이어나가는 김정은최고사령관의
현명한 선군령도에 의해 미국이 이
북앞에 완전히 무릎꿇고 항복서를
마칠 때가 반드시 올것이라고 확신
을 표명하였다.
한 정치학교수는 자기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김정일령도자님의 선군혁명위업은
김정은최고사령관에 의해 훌륭히
계승되고있다. 세계는 그들의 위인적
꿈모를 목격하며 커다란 충격을 받
고있다.
김정일령도자님의 선군혁명위업은
김정은최고사령관에 의해 훌륭히
계승되고있다. 세계는 그들의 위인적
꿈모를 목격하며 커다란 충격을 받
고있다.

한 정치실력을 과시하고계신다.》,
《김정은최고사령관의 당력과 배양,
지략은 온 세계를 경탄시키고있다.》
고 찬탄하였다.

광주의 한 교수는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국무위원장의 선군정치로 그대
로 이어나가는 김정은최고사령관의
현명한 선군령도에 의해 미국이 이
북앞에 완전히 무릎꿇고 항복서를
마칠 때가 반드시 올것이라고 확신
을 표명하였다.

한 정치학교수는 자기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김정일령도자님의 선군혁명위업은
김정은최고사령관에 의해 훌륭히
계승되고있다. 세계는 그들의 위인적
꿈모를 목격하며 커다란 충격을 받
고있다.

《김정은최고사령관의 당력과 배양,
지략은 온 세계를 경탄시키고있다.》
고 찬탄하였다.
광주의 한 교수는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국무위원장의 선군정치로 그대
로 이어나가는 김정은최고사령관의
현명한 선군령도에 의해 미국이 이
북앞에 완전히 무릎꿇고 항복서를
마칠 때가 반드시 올것이라고 확신
을 표명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백두의 뉘와 기상안고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자

세 차게 라번지는 대중운동의 불길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발단
40년이 되는 뜻깊은 올해 각
지 당조직들에서는 대중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며 생산과 건
설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켜나
가고있다.

로할 수없이 계시하고 그를
통한 사상교양사업을 신속있게
진행하였다.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속
에 가졌다는 기술혁신성과들이
이룩되었으며 창의성과와 합
리적인 발파방법을 받아들여 중
산의 전장을 열어놓게 되었다.

당조직에서는 당원들과 탄부
들의 정신력을 발달하여 조건이
불리한 곳에서 고기과 남해,
버섯을 생산하여 정상적으로 공
급함으로써 종업원들의 식생활
을 향상시키고있다.

당조직에서는 세 세기의 요구
에 맞게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연구실과 문화선전실을 개건
보수하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위대한 사상교양과 김정일에국주의
교양을 비롯한 사상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참신
하게 벌였다. 결과 모든 단계
포가 충성의 세로로 되었다.

당조직에서는 세 세기의 요구
에 맞게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연구실과 문화선전실을 개건
보수하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위대한 사상교양과 김정일에국주의
교양을 비롯한 사상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참신
하게 벌였다. 결과 모든 단계
포가 충성의 세로로 되었다.

당조직에서는 세 세기의 요구
에 맞게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연구실과 문화선전실을 개건
보수하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위대한 사상교양과 김정일에국주의
교양을 비롯한 사상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참신
하게 벌였다. 결과 모든 단계
포가 충성의 세로로 되었다.

당조직에서는 세 세기의 요구
에 맞게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연구실과 문화선전실을 개건
보수하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위대한 사상교양과 김정일에국주의
교양을 비롯한 사상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참신
하게 벌였다. 결과 모든 단계
포가 충성의 세로로 되었다.

《당조직들은 3대혁명붉은
기쟁취운동을 언제나 중요한
당적사업으로 틀어쥐고 이
운동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
여야 하겠습니다.》

수양산은하피복공장 초급당
위원회에서는 사상, 기술, 문화
의 3대혁명수행에 대중을 힘
있게 불러일으키는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영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기 위한 사
업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
동의목표에 반영하고 철저히 집
행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
고들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영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기 위한 사
업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
동의목표에 반영하고 철저히 집
행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
고들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영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기 위한 사
업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
동의목표에 반영하고 철저히 집
행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
고들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영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기 위한 사
업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
동의목표에 반영하고 철저히 집
행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
고들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영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기 위한 사
업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
동의목표에 반영하고 철저히 집
행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
고들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영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기 위한 사
업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
동의목표에 반영하고 철저히 집
행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
고들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영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기 위한 사
업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
동의목표에 반영하고 철저히 집
행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
고들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영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기 위한 사
업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
동의목표에 반영하고 철저히 집
행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
고들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영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기 위한 사
업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
동의목표에 반영하고 철저히 집
행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
고들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영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기 위한 사
업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
동의목표에 반영하고 철저히 집
행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
고들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영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기 위한 사
업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
동의목표에 반영하고 철저히 집
행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
고들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영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기 위한 사
업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
동의목표에 반영하고 철저히 집
행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
고들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영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기 위한 사
업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
동의목표에 반영하고 철저히 집
행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
고들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영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기 위한 사
업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
동의목표에 반영하고 철저히 집
행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
고들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영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기 위한 사
업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
동의목표에 반영하고 철저히 집
행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
고들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영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기 위한 사
업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
동의목표에 반영하고 철저히 집
행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
고들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영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기 위한 사
업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
동의목표에 반영하고 철저히 집
행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
고들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영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기 위한 사
업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
동의목표에 반영하고 철저히 집
행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
고들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영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기 위한 사
업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
동의목표에 반영하고 철저히 집
행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
고들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영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기 위한 사
업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
동의목표에 반영하고 철저히 집
행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
고들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영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기 위한 사
업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
동의목표에 반영하고 철저히 집
행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
고들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영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기 위한 사
업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
동의목표에 반영하고 철저히 집
행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
고들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영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기 위한 사
업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
동의목표에 반영하고 철저히 집
행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
고들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영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기 위한 사
업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
동의목표에 반영하고 철저히 집
행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
고들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영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기 위한 사
업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
동의목표에 반영하고 철저히 집
행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
고들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영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기 위한 사
업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
동의목표에 반영하고 철저히 집
행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
고들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영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기 위한 사
업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
동의목표에 반영하고 철저히 집
행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
고들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영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기 위한 사
업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
동의목표에 반영하고 철저히 집
행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
고들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영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기 위한 사
업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
동의목표에 반영하고 철저히 집
행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
고들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영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기 위한 사
업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
동의목표에 반영하고 철저히 집
행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
고들었다.

올해안에 전구간 제방성토공사 끝낼 목표

홍건도간석지 건설자들 석달동안에 22만 7400㎡의

막들과 토량 처리, 1428m의 3호제방성토공사 진행

백두의 혁명정신과 기상으로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승리의 포성을 높이 울려퍼
던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
들고 평안북도간석지건설현합
기업소의 일군들과 간석지건설
자들이 홍건도간석지건설에서
새로운 영웅적위훈을 창조해나
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
고 첫 전투에 진입한 연합기업
소일군들은 올해안으로 3호제
방성토공사를 끝내기 위한 대담
한 목표를 내세우고 경제조직
사업을 신속있게 짜고들었다.

20일동안에 해야 할 도량공
을 4일동안에 해체하고 20만
산대발파를 성과적으로 보장하
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대중의 양양된 혁명적열의
에 맞게 연합기업소당위원회에
서는 화선선전, 화선선동을 더
욱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연합기
업소 간석지건설자들은 안전지
구의 대삼포에서 지난 1월
6일 10만산대발파를, 1월
23일에는 20만산대발파를
성과적으로 진행하고 3호제방
성토공사를 줄기차게 내밀고있
다. 그리하여 석달 남짓한 기간
에 22만 7400㎡의 막들과 토
량을 처리하며 날바다를 꿰질
터 1428m의 제방을 내미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연합기업소의 책임일군들은
정초부터 안전지구의 대삼포에
나가는 10만산, 20만산대
발파준비를 위한 도량공전에서
결된 문제들을 기동적으로 풀이
하면서 전투원들을 위훈창조로
로 적극 떠밀어주었다.

연합기업소의 책임일군들은
정초부터 안전지구의 대삼포에
나가는 10만산, 20만산대
발파준비를 위한 도량공전에서
결된 문제들을 기동적으로 풀이
하면서 전투원들을 위훈창조로
로 적극 떠밀어주었다.

연합기업소의 책임일군들은
정초부터 안전지구의 대삼포에
나가는 10만산, 20만산대
발파준비를 위한 도량공전에서
결된 문제들을 기동적으로 풀이
하면서 전투원들을 위훈창조로
로 적극 떠밀어주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올해에 백두의 혁
명정신과 기상으로 적대세력
들의 도전과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승리의 포성을 높이 울려
조국해방과 당장전 일꾼들을
혁명적대장사로 빛내여야 하
겠습니다.》

연합기업소의 책임일군들은
정초부터 안전지구의 대삼포에
나가는 10만산, 20만산대
발파준비를 위한 도량공전에서
결된 문제들을 기동적으로 풀이
하면서 전투원들을 위훈창조로
로 적극 떠밀어주었다.

연합기업소의 책임일군들은
정초부터 안전지구의 대삼포에
나가는 10만산, 20만산대
발파준비를 위한 도량공전에서
결된 문제들을 기동적으로 풀이
하면서 전투원들을 위훈창조로
로 적극 떠밀어주었다.

연합기업소의 책임일군들은
정초부터 안전지구의 대삼포에
나가는 10만산, 20만산대
발파준비를 위한 도량공전에서
결된 문제들을 기동적으로 풀이
하면서 전투원들을 위훈창조로
로 적극 떠밀어주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올해에 백두의 혁
명정신과 기상으로 적대세력
들의 도전과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승리의 포성을 높이 울려
조국해방과 당장전 일꾼들을
혁명적대장사로 빛내여야 하
겠습니다.》

연합기업소의 책임일군들은
정초부터 안전지구의 대삼포에
나가는 10만산, 20만산대
발파준비를 위한 도량공전에서
결된 문제들을 기동적으로 풀이
하면서 전투원들을 위훈창조로
로 적극 떠밀어주었다.

연합기업소의 책임일군들은
정초부터 안전지구의 대삼포에
나가는 10만산, 20만산대
발파준비를 위한 도량공전에서
결된 문제들을 기동적으로 풀이
하면서 전투원들을 위훈창조로
로 적극 떠밀어주었다.

연합기업소의 책임일군들은
정초부터 안전지구의 대삼포에
나가는 10만산, 20만산대
발파준비를 위한 도량공전에서
결된 문제들을 기동적으로 풀이
하면서 전투원들을 위훈창조로
로 적극 떠밀어주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올해에 백두의 혁
명정신과 기상으로 적대세력
들의 도전과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승리의 포성을 높이 울려
조국해방과 당장전 일꾼들을
혁명적대장사로 빛내여야 하
겠습니다.》

연합기업소의 책임일군들은
정초부터 안전지구의 대삼포에
나가는 10만산, 20만산대
발파준비를 위한 도량공전에서
결된 문제들을 기동적으로 풀이
하면서 전투원들을 위훈창조로
로 적극 떠밀어주었다.

연합기업소의 책임일군들은
정초부터 안전지구의 대삼포에
나가는 10만산, 20만산대
발파준비를 위한 도량공전에서
결된 문제들을 기동적으로 풀이
하면서 전투원들을 위훈창조로
로 적극 떠밀어주었다.

연합기업소의 책임일군들은
정초부터 안전지구의 대삼포에
나가는 10만산, 20만산대
발파준비를 위한 도량공전에서
결된 문제들을 기동적으로 풀이
하면서 전투원들을 위훈창조로
로 적극 떠밀어주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올해에 백두의 혁
명정신과 기상으로 적대세력
들의 도전과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승리의 포성을 높이 울려
조국해방과 당장전 일꾼들을
혁명적대장사로 빛내여야 하
겠습니다.》

연합기업소의 책임일군들은
정초부터 안전지구의 대삼포에
나가는 10만산, 20만산대
발파준비를 위한 도량공전에서
결된 문제들을 기동적으로 풀이
하면서 전투원들을 위훈창조로
로 적극 떠밀어주었다.

연합기업소의 책임일군들은
정초부터 안전지구의 대삼포에
나가는 10만산, 20만산대
발파준비를 위한 도량공전에서
결된 문제들을 기동적으로 풀이
하면서 전투원들을 위훈창조로
로 적극 떠밀어주었다.

연합기업소의 책임일군들은
정초부터 안전지구의 대삼포에
나가는 10만산, 20만산대
발파준비를 위한 도량공전에서
결된 문제들을 기동적으로 풀이
하면서 전투원들을 위훈창조로
로 적극 떠밀어주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올해에 백두의 혁
명정신과 기상으로 적대세력
들의 도전과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승리의 포성을 높이 울려
조국해방과 당장전 일꾼들을
혁명적대장사로 빛내여야 하
겠습니다.》

연합기업소의 책임일군들은
정초부터 안전지구의 대삼포에
나가는 10만산, 20만산대
발파준비를 위한 도량공전에서
결된 문제들을 기동적으로 풀이
하면서 전투원들을 위훈창조로
로 적극 떠밀어주었다.

연합기업소의 책임일군들은
정초부터 안전지구의 대삼포에
나가는 10만산, 20만산대
발파준비를 위한 도량공전에서
결된 문제들을 기동적으로 풀이
하면서 전투원들을 위훈창조로
로 적극 떠밀어주었다.

연합기업소의 책임일군들은
정초부터 안전지구의 대삼포에
나가는 10만산, 20만산대
발파준비를 위한 도량공전에서
결된 문제들을 기동적으로 풀이
하면서 전투원들을 위훈창조로
로 적극 떠밀어주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올해에 백두의 혁
명정신과 기상으로 적대세력
들의 도전과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승리의 포성을 높이 울려
조국해방과 당장전 일꾼들을
혁명적대장사로 빛내여야 하
겠습니다.》

연합기업소의 책임일군들은
정초부터 안전지구의 대삼포에
나가는 10만산, 20만산대
발파준비를 위한 도량공전에서
결된 문제들을 기동적으로 풀이
하면서 전투원들을 위훈창조로
로 적극 떠밀어주었다.

연합기업소의 책임일군들은
정초부터 안전지구의 대삼포에
나가는 10만산, 20만산대
발파준비를 위한 도량공전에서
결된 문제들을 기동적으로 풀이
하면서 전투원들을 위훈창조로
로 적극 떠밀어주었다.

연합기업소의 책임일군들은
정초부터 안전지구의 대삼포에
나가는 10만산, 20만산대
발파준비를 위한 도량공전에서
결된 문제들을 기동적으로 풀이
하면서 전투원들을 위훈창조로
로 적극 떠밀어주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올해에 백두의 혁
명정신과 기상으로 적대세력
들의 도전과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승리의 포성을 높이 울려
조국해방과 당장전 일꾼들을
혁명적대장사로 빛내여야 하
겠습니다.》

연합기업소의 책임일군들은
정초부터 안전지구의 대삼포에
나가는 10만산, 20만산대
발파준비를 위한 도량공전에서
결된 문제들을 기동적으로 풀이
하면서 전투원들을 위훈창조로
로 적극 떠밀어주었다.

연합기업소의 책임일군들은
정초부터 안전지구의 대삼포에
나가는 10만산, 20만산대
발파준비를 위한 도량공전에서
결된 문제들을 기동적으로 풀이
하면서 전투원들을 위훈창조로
로 적극 떠밀어주었다.

백두산혁명강군의 창건자이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군인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주체 72(1983)년 4월



해군함선에 오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주체 60(1971)년 4월



미제침략군 대형정찰기를 단방에 요정번 비행기를 보아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주체 60(1971)년 12월



락하훈련을 보시며 만족을 표시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주체 59(1970)년 10월



군인들이 다루는 무기의 무게를 가늠해보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주체 58(1969)년 4월



인민군병사의 무장상태를 보아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주체 54(1965)년 5월



최전연초소를 시찰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주체 52(1963)년 2월



인민군군인들과 함께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주체 55(1966)년 2월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 105방크사단을 현지도 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주체 49(1960)년 8월



방크병들을 만나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주체 72(1983)년 4월

선군혁명의 역사를 개척하신 절세의 애국자, 민족의 영웅

그날은 1932년 4월 25일이였다

주제 21(1932)년 4월 25일, 승리와 영광의 역사를 눈부시게 수놓아 온 영웅적조선인민군이 자기의 탄생 온 세상에 선포한 역사의 날이다.

백두의 밀림속에서 회색의 천을 명장 김일성장군을 높이 모시고 위대한 탄생을 알린 주제의 첫 혁명적투쟁적인 조선인민혁명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이 창건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역사상 처음으로 자기의 진정한 군대를 가지게 되었으며 이때로부터 총대의 위력으로 전진하는 조선혁명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잇을 수 없는 80여년전의 그 봄날, 천고의 밀림속등반에 애국으로 피뎠는 열혈청년들이 전설적위인을 우러러 정렬했다.

강반서어머님의 뜨거운 지성이 깃든 혁명의 군복을 펼쳐지고 빈틈없는 필적의 총대를 으스스하게 틀어잡은 선군의 첫 세대들이였다.

드넓은 광장도 아니었고 요란한 주악도 행진도 없었다.

한 나라 군대의 창건식이라 하기엔 아무도 소박하였다.

조선혁명의 첫 기술에서 김일성동지와 피와 목숨을 나눌것을 맹약한 조선의 열혈청년들의 장한 대오였다.

20대의 청년장군 김일성동지께서 주먹을 높이 들고 연설하시였다.

《동무들! 우리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여나갈 자랑스러운 반일인민유격대의 첫 성원들입니다.》

조선혁명의 전도는 전적으로 우리들이 어떻게 싸우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열혈의 혁명가들은 백두산천출명장을 우러러 목청껏 만세의 환호를 터치며 두 볼을 뜨거운 눈물로 적셨다.

천주적의 총대를 어깨에 틀어잡은 선군의 첫 세대들의 심장마다에 격정의 환희가 얼마나 세차게 파도쳤던가.

수치스러운 치욕과 굴종을 강요당하며 강한 군대, 강한 총대를 빼앗아 사투로 부러뜨려온 남다른 우리 민족이였다.

조선아, 너는 왜 남처럼 강하지 못하였나!

국력이 강한 나라, 강국을 복으며 부르는 이 나라 인민의 절충함은 정녕 하늘에 사무쳤다.

총대가 약하면 민족이 멸망하고 강국에 가는 길은 오직 총대를 틀어쥐는 길밖에 없다는 철의 진리를 심장에 새겨 안고선 백두산대장 김일성장군!

민족해방의 위업은 오직 무장투쟁으로만 달성할수 있다는 철의 교훈을 사무치게 절감하시였기에 무장에는 무장이라는 가치를 높이 드시고 양양에서 혈전하던 언덕을 넘어 가시덤불길에 헤치신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끝없는 환희로 달아오른 천고의 밀림속등반으로 구름같이 모여온 인민들이 서로서로 키돋음을 하며 나누던 소박한 목소리가 세월의 언덕을 넘어 오늘날도 우리 천만의 가슴 뜨겁게 한다.

《아니, 김대장이 저렇게 젊으셨어요? 아직 20대 초반이였지 않아요?》

《올해 초 안도 서문밖에서 이사는 데의 말조차 듣는분이러라잖소. 초년에 정치위원까지 겸했나봐요.》

《헌데 평강은 수염이 허영네 난 장수라고 하지 않았어요?》

《글쎄, 난 돌아가는 말을 듣고...》

그 어디에서나 파다하게 퍼진 김대장으로서 가솔들이 진정한 우리 군대의 탄생을 배우고대하던 인민들이 아니었던가.

조선혁명은 이렇게 승승장구의 님을 올렸다.

위대한 수령님 추켜드신 혁명의

대결전을 구상하고계시였다.

어느날 밤 감방안에서 책을 읽고 계신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디선가 교활자들이 되려는 사람에게 악착한 고문을 들이대는 소리를 듣게 되시였다.

살이 찌기는듯 한 아프리카 비명소리에 분격을 금치 못해 하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읽던 책을 덮고 감방안의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 나라는 일제의 감옥으로 변했다고 하시면서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조선독립을 이룩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무장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시였다.

그러면서 무장한 적과는 무장으로 맞서싸워야 한다고, 발톱까지 무장한 일본제국주의를 무장으로 대항하는 폭력투쟁, 이것이 우리 혁명가들이 들어가 할 구호이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유일한 길이라고 선언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좌중을 둘러보시며 무장투쟁을 벌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하여 다른 나라의 군대가 무장을 메고서 우리를 도와줄지는 만무하다, 우리에게는 인민이 있다, 우리는 왜놈의 무기를 빼앗아서 무장을 마련하는 한편 자체로 대오를 부단히 높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리정연한 가르침에 공감하면서도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람도 있었다.

한다하는 독립군도 많아들고 있는데 왜 해낼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 맴돌고있었기때문이었다.

사실 그때 독립군이라는것은 명색뿐이지 사본오떨어져 군자급이나 모아들이면서 권력쟁탈의 결사전에 투사들을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항일혁명투사들에게 있어서 붉은기는 곧 조국해방을 만드신 안아올수 있다는 신념의 기치였으며 승리를 펼쳐게 하는 성스러운 군기였다.

그러나 우리 혁명의 1세들이 주체혁명위업의 백전백승을 상징하여 높이 추켜든 붉은기는 우리 군대의 첫 군기였다.

그러나 그들은 조선독립을 위한 이렇다할 방책을 내놓지 못하고 좌절감과 비감으로 몸부림치고있었다.

바로 이러한 속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만은 일제와의 전면

전으로 물고뜯는 싸움만 벌여놓아 인민들에게 실망과 허무감을 안겨주고있었다.

그의 이런 생각을 한히 꿰뚫어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지금 독립군의 투쟁방식으로

는 결코 도탄에 빠진 민족을 구원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모든 반일외국력량을 단

합하여 무장을 들고 일제와 맞서싸워야 한다, 그러자면 모든 조선청년들을 다 묶어세워 투

쟁에 걸기시켜야 한다, 이런 방법으로 먼저 군중을 각성시

키면 앞으로 우리가 무장부대를 이끌고 국내에로 나가게 될

때 전국각처에서 국내인민들이 왜놈들을 반대하여 들고일

어나게 될것이다라고 힘주어 강조하시였다.

어제날 외세의 총칼밑에 신음하던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

명이 어떻게 구원되었던가, 그것은 위대 수령님께서 철창에서 무르익히신 항일대전의 구상이 현실로 펼쳐졌기때문

이었다.

그렇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철창속에서도 혁명투쟁을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고 대

국들의 도움으로 나라의 독립을 이룩해야 한다는 사대주의자들의 주장에 종지부를 찍으

시였다, 그리고 조국해방을 이룩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무장투쟁을 벌리는데 있다는것을 밝히시였다.

주체형의 첫 혁명적투쟁적인 조선인민혁명군은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탁월한 선군혁명의지와 독립에 대한

뛰어난 자기의 고고성을 온 세상에 떨칠수 있었다.

본사기자

조국해방을 위한 위대한 위업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다. 1929년 겨울 길림감옥에서 혁명 투쟁을 벌려나가던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 이 오늘날도 삼삼히 이어나온다.

인간생지우대 같은 감옥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반년나오지 않은 지를 이겨내며 서도 조선혁명의 진로를 모색해나갔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길림감옥에 계시 때 감옥에 갇혀있던 조선사람들

치고 자신들의 운명과 나라의 독립을 하나로 결부시켜보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조선독립을 위한 이렇다할 방책을 내놓지 못하고 좌절감과 비감으로 몸부림치고있었다.

바로 이러한 속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만은 일제와의 전면

전으로 물고뜯는 싸움만 벌여놓아 인민들에게 실망과 허무감을 안겨주고있었다.

그의 이런 생각을 한히 꿰뚫어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지금 독립군의 투쟁방식으로

는 결코 도탄에 빠진 민족을 구원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모든 반일외국력량을 단

합하여 무장을 들고 일제와 맞서싸워야 한다, 그러자면 모든 조선청년들을 다 묶어세워 투

쟁에 걸기시켜야 한다, 이런 방법으로 먼저 군중을 각성시

키면 앞으로 우리가 무장부대를 이끌고 국내에로 나가게 될

때 전국각처에서 국내인민들이 왜놈들을 반대하여 들고일

어나게 될것이다라고 힘주어 강조하시였다.

어제날 외세의 총칼밑에 신음하던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

명이 어떻게 구원되었던가, 그것은 위대 수령님께서 철창에서 무르익히신 항일대전의 구상이 현실로 펼쳐졌기때문

이었다.

그렇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철창속에서도 혁명투쟁을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고 대

국들의 도움으로 나라의 독립을 이룩해야 한다는 사대주의자들의 주장에 종지부를 찍으

시였다, 그리고 조국해방을 이룩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무장투쟁을 벌리는데 있다는것을 밝히시였다.

주체형의 첫 혁명적투쟁적인 조선인민혁명군은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탁월한 선군혁명의지와 독립에 대한

뛰어난 자기의 고고성을 온 세상에 떨칠수 있었다.

본사기자

《동지들! 이 총을 받아주!》

백두산총대 높이 추켜들고 힘차게 전진하는 이 땅에 언덕과 세기를 넘어 메아리치는 부름이 있다.

조국보위초소에서, 창조와 비약으로 약동하는 건설장들과 지하막장들, 동창들 등 그 어디에서나 울리는 투사의 휘성 《동지들! 이 총을 받아주!》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피다나만리, 눈보라만리를 헤치던 나날 한자루의 총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며 헤친 투사의 목소리가 꽃없이 메아리치는 이 땅의 현실은 참으로 의미심장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의 총대위에 혁명위업의 승리가 있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독립도 변역도 있습니다.》

《동지들! 이 총을 받아주!》 조선혁명의 년대와 년대를 넘어 천만의 심장을 뒹뒹 올려주는 혁명의 부름, 역사의 호소이다.

한자루의 총을 위해 혁명선열들이 부린 피는 그 얼마였

던가. 이 나라의 초부들이여 부디 삼가 나무를 버리라— 우리 선렬의 령을 그 나무 고이 지키는 지 어이 알리라고 백두팡야에 선혈을 뿌린 투사들을 뜨겁게 추켜한 한 시인이 쓴것처럼...

혁명동지들의 피가 진하게 스며든 총대, 목숨보다 귀중한 그 총대를 굳건히 틀어쥐고 투사들은 포악무도한 일제를 쳐부시고 조국해방의 날을 안아

왔다. 혁명선열들의 넓이 령력하여 린 그 총대로 우리 군민은 침략자 미제를 타승하고 조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였다.

승리와 영광을 빛나는 조선혁명의 영웅기적사는 절로 이루어진것이 아니었다.

당국의 그 세월 상가집 개보도 못한것이 이 나라 사람들의 운명이었다.

만국평화회의장에 선혈을 뿌리며 독립을 위하여 청년도 해보았으나 차체것은 탕대와 환암뿐이었다.

양국노의 한이 구전에 사무쳤던 그때 세상의 사망을 떠올리

며 백두명장의 역사의 선인이 울려 퍼졌다. 《무장은 우리의 생명이다! 무장에는 무장으로!》

정녕 무장은 우리의 생명이다. 백두산장군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높이 추켜드신 백두산총대가 있어 우리 군대와 인민은 항일대전과 반미대결전에서 역사적승리를 떨칠수

있었다. 또 한분의 백두산장군이신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모시어 우리 조국은 총대로 원수들의 침략책동을 단호히 짓부시며 조국의 존엄과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만방에 떨치였다.

그 나날 총대의 귀중함을 다시금 뼈에 새긴 우리 군대와 인민기에 오늘날도 목숨을 바쳐 총대의 귀중함을 새겨준 투사의 피라는 세월을 심장에 새기며 총대를 더더욱 으스스하게 틀어잡고있는것이였다.

그렇다, 총대이자 민족의 생명이고 혁명의 승리이다!

본사기자 김인선

하나의 감격적인 화폭이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며 의미심장한 여운을 남기고있다.

우리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인 이 땅에 있는 원수님의 발걸음마다 백설을 날리며 세기의 하늘높이 솟아있는 백두산에 올라 혁명의 붉은기를 휘날리며 목청껏 《안세!》의 환호성을 터친 조선인민군 전투비행사 백두산지구 혁명적전투

단사행군대 선원들의 가슴 그 얼마나 벅찼랴.

순애에 붉은기를 든 그들의 열혈청년 모습에서 우리 천만군민은 과연 무엇을 보았던가.

피어난 항일의 나날 백두산대장 김일성동지를 받들어 청춘도 생명도 다 바친 항일혁명투사들이 힘차게 휘날린 붉은기, 그 장엄한 필릭임을 누구나 보았으리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무력건설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은 수령님의 혁명업적기초에서도 가장 귀중한 업적이며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인민군대를 더욱 강화하며 선군군정치를 펴나가는데서 튼튼한

《동지들! 이 총을 받아주!》 본사기자 김인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인도네시아 방문 50돐과 김일성화명명 50돐에 즈음하여 인도네시아 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서

연 회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인도네시아 방문 50돐과 김일성화명명 50돐에 즈음하여 16일 인도네시아 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장은 우리 나라 기발과 인도네시아 기발이 세워져있

제30차 중앙과학기술축전이 개막되었다.

이번 축전은 농업, 경공업, 수산 및 생물, 기초과학, 에너지, CNC, 정보, 20세기 분과로 나누어 진행되게 된다.

축전에는 성, 중앙기관과 대학, 각 도(직할시)과학기술축전에서 당선된 310여개 단체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개막식이 22일 3대혁명전시관에서 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태복동지와 김용진내각부총리, 최상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김승두 교육위원회 위원장, 장철 국가과학원 원장, 판계부분 일군들, 과학자, 기술자, 3대혁명소조원들 등이 개막식에 참가하였다.

개막사를 계획한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이 하였다.

그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마련해주신 과학기술축전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세심

한 지도밑에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추동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과학자, 기술자들,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최첨단과학기술,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파격히 벌일으로써 지난해 농업, 수산업, 화학공업, 석탄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생산적양성이 일어나고 생산공정의 CNC화, 무인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 전진이 이뤄진대 대하여 그는

말하였다.

그는 전사회적관심 속에 진행되는 이번 축전은 제국주의자들의 과학기술분쇄와 악랄한 경제책동을 짓밟개버리며 지식경제 건설의 지름길을 열어나

간천탄광 조림 기술혁신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 무들을 비롯한 당원위원회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과학기술의 힘으로 모든 부문을 빨리 발전시키며 대하여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기술혁신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조급당원위원회에서는 기술자, 3대혁명소조원들의 정신력을 최대한으로 발휘시키기 위한 정치사상을 활발히 벌리면서 그들의 사업과 생활을 따뜻이 돌봐주어 그들이 기술혁신에 적극 열쳐나서도록

제30차 중앙과학기술축전 개막

한 지도밑에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추동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연설자는 모든 참가자들이

가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다고 말하였다.

축전을 통하여 당의 의도에 맞게 과학기술의 최첨단요소를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과학기술의 힘으로 모든 부문을 빨리 발전시키며 대하여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기술혁신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조급당원위원회에서는 기술자, 3대혁명소조원들의 정신력을 최대한으로 발휘시키기 위한 정치사상을 활발히 벌리면서 그들의 사업과 생활을 따뜻이 돌봐주어 그들이 기술혁신에 적극 열쳐나서도록

리분출, 장영남, 김승원 등

래 양 절 에 즈 음 하 여

수리아특명전권대사 연회 마련

태양절에 즈음하여 따맘 쉼페이만 주조 수리아어람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22일 대사관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리수용외무장, 강하국보건설, 판계부분 일군들이 초대되었다.

수리아어람공화국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따맘 쉼페이만 특명전권대사가 연설하였다.

그는 만평대에서 조선민족의 태양으로 탄생하시어 항일무장투쟁의 길에 나서신 김일성주석각하께서 일제를 타승하고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시였다고 말하였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끊임 없는 괴립압살책동속에서도 자기의 존엄을 굳건히 수호해가고 있는 조선의 현실은 김일성주석각하께서 제시하신 투쟁로선의 정당성을 뚜렷이 보여

주요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축인하여, 존경하는 조요 위도대통령의 건강을 축인하여,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관계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위업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굳건히 이어지고있다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우리 인민은 앞으로도 온갖 적대세력들의 침략에 맞서 나라의 자주권과 명도관정을 수호하며 번영하는 수리아를 건설하기 위한 수리아정부와 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변함없는 지지와 연대성을 보낼것이라고

말하였다.

연회참가자들은 인류의 자주위업수행과 조선인민과 수리아인민사이의 불멸의 친선단결을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영생을 기원하였으며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축인하여, 존경하는 바사르 아사르 대통령각하의 건강을 축인하여 잔을 들었다.

수리아어람 69쪽에 즈음하여 따맘 쉼페이만 주조 수리아어람공화국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22일 김일성종합대학을 참관하였다.

순남들은 먼저 대학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린 다음 혁명사적관을 참관하였다.

이 땅에서 첫 인민의 대학을 세워 주시고 대학의 건립발전을 위한 사업에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바치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에

깊은 관심을 돌려 무들을 비롯한 당원위원회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과학기술의 힘으로 모든 부문을 빨리 발전시키며 대하여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기술혁신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조급당원위원회에서는 기술자, 3대혁명소조원들의 정신력을 최대한으로 발휘시키기 위한 정치사상을 활발히 벌리면서 그들의 사업과 생활을 따뜻이 돌봐주어 그들이 기술혁신에 적극 열쳐나서도록

리분출, 장영남, 김승원 등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한계 휘날리며 천만의 철의 대오를 성스러운 위업으로 용감무쌍히 부르는 우리의 군기.

사람들이여,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의 군위부대에 와보

시라,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선전에서 특출한 공훈을 세운

군위부대들의 군위군기를 보며

우리는 백두산혁명강군의 영광된 승리의 행로를 자랑스럽게 돌이켜볼것이며 위대한 수령님의 피어난 선군혁명의 한평생을 눈물겹게 절감

하게 될것이다.

우리 인민군대의 군기는 백두산혁명군대를 높이 모시

어 백전백승을 떨친 백두산대군의 승리의 행로를 자랑하는 상징이며

당과 혁명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이 나라의 장한 아들딸들이 걸은 영광스러운 전투적행로의 증거이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갈바람정신을 안고 더 거세게 휘날리

는 영웅적조선인민군의 군위를

앞세우고 그 뒤임없는 필릭소리에

심장의 박동을 함께 하며

한대 미제의 거만함 코대를 쪼개

고 전승의 열혈적정신을 보부당

히 행진할 때 대오의 군기에 높이

이 휘날린 우리의 눈, 꽃없이

펼쳐진 최후승리의 앞전에 장엄

본사기자 림정호

본사기자

본사기자

현명적이면서 건전한 후대들이 많이 자라나고 있다

사회주의 문명 강국으로 여세를 나아가는 오늘날의 북한 투쟁과 생활속에서 누구보다 바쁜 사람들이 있다. 어머니들이다. 현명한 한복수레바퀴를 힘차게 밀고나갈 역사적책임과 함께 나라의 운명, 그 건도를 좌우하는 후대교양의 중대한 임무가 바로 그들에게 지워져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어린이의 첫가는 교양지향의 어머니입니다.> 자녀교양에서 아버지가 맡고있는 몫도 적지 않다. 그러나 자식을 낳아 후대의 가슴에, 따뜻한 온기처럼 품어키우는 어머니의 역할은 더없이 크고 중요하다. 그것을 자각한 온 나라의 수많은 어머니들이 자식들을 사회주의문명강국의 기둥감으로 키울 높은 포부와 열정을 안고 자식교양에 큰 힘을 쏟고 있다. 그렇수록 우리 어머니들이 자기앞에 내세우는 요구도 날을 따라 높아지고있다. 어머니는 자식을 어떻게 교양해야 하는가. 어떤 교양이 자녀들의 올바른 성장을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참된 인생의 싹을 틔우며 지혜롭게 자라게 하는가. 그에 대한 대답을 두 영웅아들을 둔 어머니의 생활

참된 인생의 싹과 어머니

두 영웅아들을 둔 동대원구역 최옥애녀성의 생활을 놓고

에서 찾아보자. 최옥애녀성의 딸아들은 평양도시계획연구소 설계가이다. 그는 여러해전 모향산등산도설계를 훌륭히 완성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어린 치하의 교시를 받아안고 38살에 로력영웅이 되였다. 둘째아들은 조선인민군 중대장이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제4차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를 몸소 지도하시며 이번 대회를 통하여 중대강화에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온 진주보석과 같은 애국자, 공로자들을 찾아내셨다고, 당중앙위원회는 이들을 높이 평가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하시면서 친히 로력영웅칭호를 수여해주신 복받은 5명 중대장중 한 사람이다. 관설위인들의 품속에서 영웅으로 자란 사성일, 사성국 형제의 뒤에는 자식들에게 참된 인생길을 가르쳐주기 위해 오랜 세월 심혈을 바쳐온 최옥애녀성이 있다. 지난 시기 그가 일관하게 견지하여온 자녀교양방법들 가운데서 몇가지 주목되는 점이 있다. 살아가느라 생활과정에서 사소한 언쟁이 있을수 있다. 하지만 최옥애녀성은 부부

간에 그 어떤 말다툼이라든가 있을새라 극력 주의하였다. 부모의 언쟁이 나이면 자식들에게 주는 심리적불안과 장애와 같은 좋지 못한 후과를 생각한것이다. 내 잠못이 보고 용서하라 내라는 노래절도 있듯이 부부간의 하찮은 의견상이는 물론 남편이 간혹 오해를 할 때에도 그는 항상 자기 먼저 양보하여 부부간에 거칠거나 험한 말이 한마디도 오가지 않게 하였다. 집안에 넘치는 화목한 분위기와 따스한 정, 부부간에 주고받는 케첩비린 언행은 자식들이 건전한 정신도덕성품도 갖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되었다. 아이들이 견학을 가는 날이면 소박한 살림에도 정성을 다한 특식을 가방에 넣어주며 최옥애녀성이 당부하셨다는 말도 아주 인상깊다. <동무들과 나누어먹어라. 혹시 열무들의 반찬이 좋지 못해도 허물치 말고 맛있게 들어라. 그래야 그 애 마음이 편치라.> 한번은 사성국동무가 먼곳에 사는 학급동무를 집에 데리고와서 자기 집살림을 함께 나누어먹은적이 있다. 저녁에 퇴근하여 그 사실을 안

최옥애녀성은 <잘했다!> 라고 하며 이들의 등을 두드려 주었다. 최옥애녀성은 이렇게 자식들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인정을, 긍지의 싹을 심어주고 적극 조장받았시켜주었다. 그 작은 싹이 어떻게 자랐는가. 올해 4월 1일 동대원구역 불동초급중학교에서는 새 교사건물을 완공하고 뜻깊은 개학모임을 가지였다. 지난해 10월 교사의 한 건물을 개건보수해야 할 과제를 떠안고 있던 남편이 일찌기 세상을 떠난 후 자신의 행진기에도 맡은 일을 멈추지 않은 어머니의 강직하고 성실한 모습은 사성일, 사성국동무들에게 본심일무수행에 대한 지칠 줄 모르는 사색과 탐구, 불같은 정열과 대담한 마음씨, 조국과 인민에 대한 참다운 사랑과 헌신을 말없이 가르쳐 준 훌륭한 본보기이고 거울이었다. 두 영웅아들을 둔 최옥애녀성의 생활에서 우리가 찾게 되는 경건과 효훈은 무엇인가. <매 인간의 참된 인생, 훌륭한 삶은 어머니의 슬하에서 자라는 그 시절에 벌써 방향이 정해지고 싹이 트는것이다. 자녀교양에서 어머니의 역할은 이렇게 중요하다. 어머니를 어린이의 첫가는 교양자, 인생의 첫 스승이라고 하는것은 바로 그래서이다.> 본사기자 허 명 숙

자랄수도 있다. 사성일, 사성국 영웅들의 가슴속에는 자기들을 키우며 직장일에도 헌신적이었던 어머니의 모습이 짙게 새겨져있다. 최옥애녀성은 젊어서부터 년로보장나이가 되도록 설계원으로 일했다. 집에 돌아와서도 자기들을 설계하고는 다시 설계도면을 펼치곤 한 어머니, 역시 설계원이었던 남편이 일찌기 세상을 떠난 후 자신의 행진기에도 맡은 일을 멈추지 않은 어머니의 강직하고 성실한 모습은 사성일, 사성국동무들에게 본심일무수행에 대한 지칠 줄 모르는 사색과 탐구, 불같은 정열과 대담한 마음씨, 조국과 인민에 대한 참다운 사랑과 헌신을 말없이 가르쳐 준 훌륭한 본보기이고 거울이었다. 두 영웅아들을 둔 최옥애녀성의 생활에서 우리가 찾게 되는 경건과 효훈은 무엇인가. <매 인간의 참된 인생, 훌륭한 삶은 어머니의 슬하에서 자라는 그 시절에 벌써 방향이 정해지고 싹이 트는것이다. 자녀교양에서 어머니의 역할은 이렇게 중요하다. 어머니를 어린이의 첫가는 교양자, 인생의 첫 스승이라고 하는것은 바로 그래서이다.> 본사기자 허 명 숙

자식들의 가슴에 새겨진 당부

조국보위 초소로 떠나시는 자식들의 가슴속에 우리 어머니들은 무엇을 새겨주는가. 위대한 수령도 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녀성들은 자식들을 훌륭히 키워 조국보위초소에 내세우는것을 녀성들의 애국적본분으로, 더없는 영예로 여기며 총대가정, 혁명적군인가정대렬을 늘려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언제인가 취재일이 있을 일이였다. 개천역에 내려 개찰구를 벗어난 나 문득 어디선가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녀인들의 목소리만 들려오는 듯 더 이상 들려오지 않는 듯이 또렷한 처녀애의 목소리도 들려오는 듯이 또렷하게 들려오는 노래소리도 들려왔다. 호기심에 끌려 지도모르게 우리는 노래소리 울리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찾고보니 그곳은 개천시 권력기동사무소의 건물이었다. <이번에 고급중학교를 졸업하고 조국보위초소로 떠나시는 졸업생들을 위해 준비한 병사가 되주세요. 우리 어머니들은 영웅이 되어 고향

원장 진회숙동무의 말이였다. 그는 조용히 추억을 더듬었다. 권력기동초급녀맹원위원회에서는 해마다 조국보위초소로 떠나시는 졸업생들을 위해 차례로 축하공연을 준비하곤 하였다. 노래도 부르기도 하고 고인민군후방가족들의 뜻깊은 이야기도 들려주며... 그런 축하공연을 한지도 이제는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이번에도 조국보위초소로 떠나시는 졸업생들을 위해 동양인의 녀성들이 품을 들여 축하공연준비를 했다고 감동에 젖은 목소리로 동녀맹원들이 말하였다.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공연도 함께 보았다. 군대에 입대하는 졸업생들의 어머니들이 부른 노래 <어머니의 행복>과 졸업생들이 부른 노래 <나는 알았네>,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등 공연무대에 오른 중독물에는 자식들모두를 조국애에 이끌리게 키워 내세운 어머니들의 긍지와 조국보위초소에서 위훈을 떨친 졸업생들의 심정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었다. 인민군후방가족인 송영숙어머니는 시 <어머니의 당부>를 읊어 관람자들의 심금을 크게 울려주었다. 그리고는 흐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동무들, 조국을 지키는 영웅이 되주세요. 우리 어머니들은 영웅이 되어 고향

에 돌아오는 동무들을 기다리겠습니다.> 열렬한 박수소리, 가슴이 모자라게 안겨지는 꽃송이들... 어머니들이 자식들과 함께 부른 노래는 또 얼마나 감동적이었는가. 동녀맹원들의 말에 의하면 자녀교양을 잘하여 동리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어머니도 있고 인민군대원호와 사회주의건설장전에 대한 지원사업을 잘해서 인민민의 자랑스러운 떠돌이로 떠돌아다니고 있는 어머니도 있었다. 열두자락 치마폭에 고이 안고 키운 자식들을 조국보위초소로 떠나보내게 된 격경으로 어머니들의 눈가에 뜨거웠음이 어찌없다. <어머니의 행복>과 졸업생들이 부른 노래 <나는 알았네>,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등 공연무대에 오른 중독물에는 자식들모두를 조국애에 이끌리게 키워 내세운 어머니들의 긍지와 조국보위초소에서 위훈을 떨친 졸업생들의 심정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었다. 인민군후방가족인 송영숙어머니는 시 <어머니의 당부>를 읊어 관람자들의 심금을 크게 울려주었다. 그리고는 흐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동무들, 조국을 지키는 영웅이 되주세요. 우리 어머니들은 영웅이 되어 고향

성장과 밑거름

구장군 등립로동자구 리재선, 최영애부부

이른 새벽이면 구장군 등립로동자구에 있는 소년단립으로 올라 정성껏 씻은 갓나무머 이깎나무들을 애지중지 가꾸어가는 부부와 딸이 있다. 하루이틀도 아니고 매일같이 소년단립에 순결한 마음과 애국의 맘을 바치는 그들은 등립로동자구에 사는 리재선, 최영애부부와 딸 리일심학생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녀들을 잘 키우는것은 부모들이 당과 혁명, 사회와 인민앞에 지닌 중요한 임무입니다.> 딸을 낳아키우면서 리재선, 최영애부부들은 일심에게 어렸을 때부터 동무들을 사랑하고 잘 도와주어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하였다. 그들부부는 이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시기에도 무상치료, 무료교육의 인민적정책과 혜택을 마음껏 누리도록 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은정을 잊지 말고 공부할 잘하고 조직생활에서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이르고 하였다. 세해전 봄 나무심기가 한창이던 어느날 일심이가 문득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지, 나도 제손으로 나무를 심고싶어요.> 순간 리재선동무와 최영애동무는 가슴이 뭉클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식수설에 인민군부대를 찾으신다고 몸소 마련해가지고오신 종비나무와 모편을 심으신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때 잊지 않았고있을 때였다.

아직은 어리다그만 생각했던 아홉살 난 딸애가 아버지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갈 마음으로 작은 심장을 뚫어놓은것이었다. 학급동무들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고 진정을 다해 위태로워야 한다고 이르곤 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당부를 명심하고 동무들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치는 일심이었다. 동무들을 위해 자기의 학습장과 연필도 서슴없이 내어주고 앓는 동무를 위해 어머니가 마련해준 약재들을 들고 찾아가 그날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차근차근 알려주며 동무들을 진심으로 위해주던 일심이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언덕에 충성대해 보답할 줄은 결의를 다지는것이 나무도 대견하여 리재선동무는 딸애를 가슴에 꼭 껴안았다. <그래, 우리 나무심기를 잘하여 꼭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리자꾸나.> 그날밤 그들부부는 모든것을 다해 일심의 고운 꿈을 활짝 꽃피워주자고 의논했다. <그해 8월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지성대에 마련한 원호물자를 인민군대성비행사들에게 보내준 일심이는 그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다녀가신 어느 한 영광의 땅으로 달려가 사견있는 고장의 흙을 정히 떠셨다. <사연깊은 이 흙을 간직하고 조국의 푸른 숲을 가꾸어 주고싶어요.> 일심이의 결심을 적극 지지 해주며 리재선, 최영애부부는 그해 가을 수많은 갓나무모,

이깎나무모들을 마련하여 딸애와 함께 영광의 고장에 정히 심었다. 그 이듬해와 지난해에는 등립로동자구에 있는 소년단립에 갓나무모와 이깎나무모들을 심었고 올해에도 또다시 천수백그루나 되는 나무모들을 심었다. 나무모들을 정성껏 가꾸어 가면서 그들부부는 일심이와 함께 많은 지원물자들을 마련하여 백두산선군전선발전소건설장과 청년강제단식발전소건설장에 보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충성대해 받들어가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진정은 일심이의 마음을 더욱 자라게하였다. 일심이는 서로 돕고 위해주는 집단주의정신으로 동무들을 극진히 위해주면서 방학기간이면 청년강제단식발전소건설장에 찾아가 돌격대원들을 고무해주었다. 자기 교사와 학교를 더 잘 꾸리면서 학습과 조직생활에서 남다른 모범을 보여 선생님과 동무들의 아낌없는 칭찬을 받았다. 그중에는 최근 1호발전소 발전기실공사를 맡은 태천수력발전건설사업소의 신별혼합직장 미장공으로 일하는 아버지 김경호동무와 아들들이 가설직장 용접공 김광혁, 운수직장 골짜기용접공 김광남동무들도 있다. 김광혁, 김광남동무들은 기술능수준을 높이기 위해 애써 노력하면서 발전기실공사에서 나서는 긴장한 움직임과 골짜기용접공과 골짜기용접공이 되어 대오의 앞장 서서 이악하게 내달리곤 하였다. 그러나 한쪽으로는 혹시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청춘도 서슴없이 바쳐싸운 영웅전사들의 투쟁정신을 이어갈 줄은 결의에 넘쳐있다. -모란봉구역 개신교중학교에서- 본사기자 신 총 혁

위훈의 한길에서 청년강제단식발전소건설장에 있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달려나와 위훈과 혁신을 창조하고있는 사실들이었다. 그중에는 최근 1호발전소 발전기실공사를 맡은 태천수력발전건설사업소의 신별혼합직장 미장공으로 일하는 아버지 김경호동무와 아들들이 가설직장 용접공 김광혁, 운수직장 골짜기용접공 김광남동무들도 있다. 김광혁, 김광남동무들은 기술능수준을 높이기 위해 애써 노력하면서 발전기실공사에서 나서는 긴장한 움직임과 골짜기용접공과 골짜기용접공이 되어 대오의 앞장 서서 이악하게 내달리곤 하였다. 그러나 한쪽으로는 혹시

일을 잘하지 못하여 사람들의 말발에 오르지 않음에 하는 위구심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공명한 걱정였다. <아버지처럼 살자면 이직 멀었습니까.> 자식들에게 있어서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열매바탕을 대신하는 힘있는 교양으로 되는것이다. <아버지처럼 살자면 이직 멀었습니까.> 자식들에게 있어서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열매바탕을 대신하는 힘있는 교양으로 되는것이다. <아버지처럼 살자면 이직 멀었습니까.> 자식들에게 있어서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열매바탕을 대신하는 힘있는 교양으로 되는것이다.

그 아버지에 그 아들 <아버지처럼 살자면 이직 멀었습니까.> 자식들에게 있어서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열매바탕을 대신하는 힘있는 교양으로 되는것이다. <아버지처럼 살자면 이직 멀었습니까.> 자식들에게 있어서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열매바탕을 대신하는 힘있는 교양으로 되는것이다.

성공의 비결 김일성종합대학 물리학과 박지현학생에게는 남다른 자량이었다. <아버지처럼 살자면 이직 멀었습니까.> 자식들에게 있어서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열매바탕을 대신하는 힘있는 교양으로 되는것이다. <아버지처럼 살자면 이직 멀었습니까.> 자식들에게 있어서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열매바탕을 대신하는 힘있는 교양으로 되는것이다.

3개의 입대증 <아버지처럼 살자면 이직 멀었습니까.> 자식들에게 있어서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열매바탕을 대신하는 힘있는 교양으로 되는것이다. <아버지처럼 살자면 이직 멀었습니까.> 자식들에게 있어서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열매바탕을 대신하는 힘있는 교양으로 되는것이다.

한시도 늦출수 없고 한순간도 소홀히 할수 없는것이 계급교양이다



철천지원수 미제에 대한 치소는 분노로 가슴을 끓이고있다. -순천시계급교양관에서- 본사기자 립 락 락

중요와 복수로 심장의 피가 끓게 개성도시건설사업소에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미제와 계급적원수들을 깔아엎어 중요하고 원수들을 반대하여 끝까지 투쟁하도록 하기 위한 교양사업에 큰 힘을 쏟고있다. 사업소 초급당원위원회에서는 계급교양관찰관사업소를 조직하는 한편 학습과 조직, 미국의 민중해방자들과의 상봉모임을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어머니! 세상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사랑과 헌신의 대명사는 없을것이다. 따뜻한 미소, 다정한 사랑, 아낌없는 헌신... 어머니의 그 무한한 세계를 어찌 한두마디로 다 헤아릴수 있으랴. 미단결에도 고치지 못할 어머니들의 그 고운 마음씨와 뜨거운 인정이 더욱 부각되는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도 얼마나 돋보이는것인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실생활을 통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야말로 자기들에게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는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로는것을 확신하고있습니다.> 지난 3월은 온건 원수로동자구 132인민반 항도화녀성의 가정에서는 뜻깊은 결혼식이 있었다. 온건당원위원회와 온건인민위원회회를 비롯한 군인의 기관, 기업소의 수많은 일군들, 원수로동자구의 사무소일군들과 주민들이 신랑, 신부들을 열렬히 축하해주었다.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곁에서는 자식들을 기쁨속에 바라보는 어머니 항도화녀성의 심중에 교미친것은 무엇이었는가. 한달한시에 결혼식을 하는 아들 리승현, 딸 순영원동무들은

항도화녀성의 친자식들이 아니었다. 조국이 어려운 시련을 겪던 시기에 항도화녀성은 부모일곱은 32명의 아이들을 데려다 키웠다. 아이들의 마음속에 자기 어머니라든가 질레라든가 남몰래 속을 태운적이 그 얼마인지 모른다. 허리를 조이면서도 아이들을 잘하지 못하여 사람들의 말발에 오르지 않음에 하는 위구심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공명한 걱정였다. <아버지처럼 살자면 이직 멀었습니까.> 자식들에게 있어서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열매바탕을 대신하는 힘있는 교양으로 되는것이다. <아버지처럼 살자면 이직 멀었습니까.> 자식들에게 있어서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열매바탕을 대신하는 힘있는 교양으로 되는것이다.

결국 어떤 양말은 다발성출혈로 인해 병원에서 끝내 숨지고 말았다. 그는 친자식이 2명이나 있었지만 15만원의 지원금을 바라고 문건까지 위조하여 양말을 받아왔다고 실토하였다. 한 30대의 녀성은 자기야 낳은 아이 2명을 살해한 다음 <아버지처럼 살자면 이직 멀었습니까.> 자식들에게 있어서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열매바탕을 대신하는 힘있는 교양으로 되는것이다. <아버지처럼 살자면 이직 멀었습니까.> 자식들에게 있어서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열매바탕을 대신하는 힘있는 교양으로 되는것이다.

판이 한 두 현실 <아버지처럼 살자면 이직 멀었습니까.> 자식들에게 있어서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열매바탕을 대신하는 힘있는 교양으로 되는것이다. <아버지처럼 살자면 이직 멀었습니까.> 자식들에게 있어서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열매바탕을 대신하는 힘있는 교양으로 되는것이다.

9시가 넘어 집으로 돌아온다. 나를 사랑해주던 어머니의 따뜻한 눈빛을 잃은것을 아파라. <이것은 어머니가 알뜰중독자인 남조선의 어느 한 중학교 학생의 호소연이다.> 남조선에서는 술에 중독된 녀성들이 급격히 늘어나고있다. 그중 40대이후 중독의 알뜰중독증세가 더욱 심각하다. 나이별로 보면 전체 녀성중 40대 알뜰중독자들의 치료의뢰건수는 4만 3 703건으로서 최근 3년동안 가장 많았고 50대인 경우 2010년에 비해 2012년에는 4 059건 증가하였다. 특히 작은 음주로 받게 되는 남편과 자식들의 맹대, 사회적 비난으로 하여 수치감과 죄책감에 포로된 주부들은 더욱더 알뜰중독에 빠져들고있다.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 슬픈 어머니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인가.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아야 할 녀성들이 범죄와 타락의 길에 굴러떨어져 비난의 대상으로 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대하며 우리는 심정으로 점검해 봐야 한다. 자식들을 훌륭히 키워 내세우는 어머니들을 시대의 영웅으로, 나라의 자랑스러운 떠돌이로 떠돌아다니는 어머니들이 되게 하자. 그런 어머니가 무서워 다니는 수업이 끝나도 밖에서 해마다 받

이역만리에로 굽이치는 뜨거운 후대사랑의 대하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대원수님들처럼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불러주시고 후대들에 대한 사랑을 담고 국가의 제일중대사로 내세우시며 한평생 학생소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신 그런 위대한 어머니는 세상에 없습디다.》

백화만발하는 4월의 조국땅에 사랑의 꽃바다가 흐른다.

어머니당의 다정한 은정이 어려웠던 옛날 교복을 입고 보란듯이 거리를 활보하는 청소년학생들의 가슴속에도, 그 눈부신 모습에 울분과 말 걸음에 애를 먹는 사립생들의 얼굴마디에도 행복의 파도, 격정의 파도가 넘실거린다.

어제 조국땅뿐이라, 사랑의 교육원조비와 장학금, 근 60년세월 대를 이어 끝없이 흘러드는 사랑의 생명수에 몸도 마음도 적시며 동료들은 감격에 울고웃는다.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복받치는 감사의 정을 안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제일조선인운동의 위대한 명도자이시기 전에 이역의 학생소년들을 끝없이 사랑하신 자애로운 어머니, 다정한 학부형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그 숭고한 후대편을 받들어서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역만리에 있는 아들딸들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부어주고 계신다.

하기에 추억도 깊은 노래 《조국의 사랑은 파사르워라》를 심장으로 부르며 총련일군들과 제일동포들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헌신이 사라로운 후대사랑이 어려웠던 그 값고값은 일화들을 눈물속에 돌이켜 본다.

일군으로부터 조형원들의 백두산 지구 답사행군정형을 보고받으시였다.

백두의 산자락에서 마음의 키가 커가는 그들의 모습을 그려보시며 못내 대견해하시던 수령님께서는 문득 백두산일대는 우리 나라에서도 기온이 제일 낮은 곳인데 갑자기 걸린 동무들은 있는가고 물으시였다.

일군은 미처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씀드리며 죄송스러워하시였다.

그러자 수령님께서는 이국땅에서 우리를 친부모로 믿고 찾았든 동무들인데 아무리 일이 바쁘더라도 만사를 제쳐놓고 그 동무들을 잘 돌봐주어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한동안 생각해 잠기시였던 그이께서는 조형원동무들에게 웃음 비웃어 답사행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보내주어야 하겠다고 하시며 그 품목들을 하나하나 읽어주시였다. 그러시고는 기차로 보내면 시간간이 지체되니 비행기를 타고 가라고, 동무도 타고가서 조형원들이 생활에서 사소한 불편도 느끼지 않도록 잘 보살펴주라라고 저들저들 당부하시였다.

참으로 가슴뜨거운 이야기였다. 조형원들은 《수령님!...》하고 호느끼며 선물지함에 얼굴을 묻고야말았다. 아끼고싶은 천만마디 감사의 말을 대신하여 감격의 눈물이 샘솟듯 흘러내렸다.

항일전의 나날 강박적이었던데 대한 한 잊을 추억이 어려웠던 귀중한 돈으로 헐벗은 마안산아동단원들에게 새옷을 입혀주시던 그 은혜로운 후대사랑이, 먼곳에서 싸우는 소부대원들을 생각하시며 천개의 고기 가루까지에 한자한자 그들의 이름을 써나간던 그 뜨거운 동지애의 손길의 세대와 세대를 이어 이역의

아들딸들, 우리들에게까지 뜨겁게 미치고있구나. 자연에 생기와 활력을 주는 봄의 파사르오에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 수령님의 사랑은 정녕 그 끝과 끝이 없는 헤아릴수 없는 위대한 사랑, 영원한 사랑입니다.

사랑의 특별 열차

주제 82(1993)년 12월 초 어느날에 있는 일이다.

즐거웠던 조국방문을 마친 제일동로학생들은 열차가 몸을 실었다. 평양역을 벗어난 열차는 《만경봉-92》호가 정박해있는 원산을 향해 살같이 달렸다. 누구나 아쉬운 마음속에 아름다운 조국산천을 다시한번 새기고싶어 차창밖의 정경에 시선을 박고있었다. 그런데 지나치는 역들마다에서 술한 사람들이 환송해 주는것이 아닌가.

손을 흔들며 열정적으로 답례하던 수도 의류의 빛을 감추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조국의 한 일군은 이런 가슴뜨거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며칠전이었다. 동포학생들의 조국방문정형에 대하여 로해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문득 그들이 일본으로 돌아가기 위해 원산을 갈 때 무엇을 타고가는가고 물으시였다.

일군은 잠시 주춤하시였다. 요즘 갑자기 날씨가 사나와지면서 도로들이 얼어붙어 몸시 미끄러졌던것이다. 동포학생들이 리용할 평양과 원산사이의 도로형태도 마찬가지였다.

한동안 바세인인 일군은 출발장사를 미룰수 없어 예정대로 배스를 태워워보내려 하는데 대책을 잘 세웠으니 너무 마음쓰시게 잘 마무리짓게 말씀드리었다.

하지만 장군님께서는 슬물지같은 눈송이가 임없이 쏟아져내리는 창밖을 바라보시며 아무 말씀이 없으시

모두의 가슴속에서 이런 심정의 웨침이 터져나왔다.

배스의 메부리와도 같은 뿔송의 기상, 산악같은 힘이 솟아올랐던 답사행군대오는 다음전구를 향해 모두당당히 힘차게 전진해갔다.

이후로 그이께서는 날씨가 불리한데 배스로 가는것보다 기차로 가는것이 더 안전할것이라고 하시면서 특별열차를 따로 내오도록 해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던 원산까지의 철길구간에 불리한 개소가 없도록 철저히 갈아보고 빈틈없는 대책을 세워야 하겠다고 보이시였다. ...

일군의 이야기는 끝났다. 동포학생들은 자기들이 지금 타고가는 열차에 어떤 뜨거운 사연이 깃들여 있는지 그에서야 알게 되었다. 열차안 여객기에서 호느낌이 터져나왔다.

나라일에 그토록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기들의 숙소문제를 마음쓰시며 400여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평양의 고급호텔에서 아무런 불편없이 생활하도록 해주시고 생일을 맞는 학생들에게 사랑의 생일상도 차려주도록 하여주시는 장군님이시였다. 그런데도 이토록 다정한 은정을 거들거늘 배를어주시니...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일장군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감격의 웨침이 함창마냥 터져나왔다.

그에 화답하듯 특별열차는 기적소리를 높이 울리며 해돋이마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열된 동포학생들의 마음은 우리 장군님께서시는 평양으로, 평양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본사기자 허영민

불법적인 총련탄압행위 등에 대해 사죄하라

재미동포전국연합회가 공개선언 발표하고 강조하는 유일한 단체라고 강조했다.

일본당국은 강제수색수동을 통하여 우리 민족에 대한 감출수 없는 적대적강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있다고 단죄하였다.

우리 동포들은 일본이 저들이 감행한 극악하고 잔인한 식민지통치에 대해 진심어린 사죄와 반성을 하지 않고있는것을 주시하고있다고 밝혔다.

오리러 일본정부는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성노예범죄행위 등 전정범죄를 정당화하고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며 군국주의부활을 꾀하고있다고 폭로하였다.

편지는 이번에 저지른 불법적인 총련탄압행위에 대해 일본수상이 직접 사죄하며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일본단체들이 당국의 총련탄압행위를 규탄하여 1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일조후호 도우시마현민연대는 이번 경찰당국의 폭거는 정체의도를 품은 부당한 강제수색이라고 단죄하였다.

성명은 총련이 일조간에 국교가 없는 속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외교대표부지역활동을 하면서 두 나라사이의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는것은 일본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총련의 최고책임자이며 공화국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인 장과 부의장을 《조선》취급하며 그들의 집을 강제수색한것은 일본에 대한 총련과 조선의 반감을 불러일으킬뿐이라

하늘길로 전해진 선물

주제 63(1974)년 8월 조국을 방문한 제일조선청년체육대회대표단이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이 깃들어있는 량강도산의 혁명전지들을 답사하고있을 때에 있는 일이다. 오각별 찬란한 광채를 공회극기를 높이 휘날리며 혁명적행진하고있던 답사대오에 뜻밖의 전보문이 날아왔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친히 보내주신 비행기가 곧 도착하게 된다. 무로속역에서 기다리라. ...》

이 감격적인 소식에 접한 동포청년들은 서로서로 부둥켜안고 비행기가 날아올 하늘가를 눈물속에 바라보았다. 맑고 푸른 하늘에 두

동실 떠가던 흰구름도 소리없이 멈춰서고 끝없이 펼쳐이던 밀밭도 숨을 죽인듯싶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마침내 비행기통이 울려왔다. 순간 우렁찬 감격의 환호성이 무로의 하늘가에 메아리쳤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만세! 만세! 만세! ...》

비행기에서 내린 일군의 목소리는 격정으로 떨리었다.

《동무들! ...아버지수령님께서... 동무들에게 귀중한 사랑의 선물을... 선물을 보내주시였습니다. ...》

선물에서 깃든 사연은 동포청년들의 가슴을 세차게 울리었다.

며칠전 아버지수령님께서 한

단제는 일본정부기 역사학을 외국의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에서 통과시킨것과 관련하여 항의의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외국인 교과서를 배정하는 서명운동을 벌여 서명문을 일본정부에 전달할것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또한 일본군 성노예단행과 관련한 자료들을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 보급하는 등 일이라고 강조했다.

참사가 일어난지 1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실종자들을 찾지 못하였으며 진실 또한 밝히지 못하였다고 개탄하였다. 지금도 유가족들은 어린 자식들과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속에 눈물을 흘리고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정부가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한 《시행령안》을 폐기하고 선체를 시급히 인양하여 진상을 밝히기를 요구하였다.

《세월》호참사피해유가족들과 시민단체성원들 추모 집회 진행

《세월》호참사가 빛이진 때로부터 1년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유가족들과 시민단체성원들이 15일 전라남도 진도 팽목항에서 추모집회를 가졌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오늘 집회가 단순히 희생자추모가 아니라 실종자 9명을 찾고 명확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세월》호인양을 요구하는 모임이라고 밝혔다.

참사가 일어난지 1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실종자들을 찾지 못하였으며 진실 또한 밝히지 못하였다고 개탄하였다. 지금도 유가족들은 어린 자식들과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속에 눈물을 흘리고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정부가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한 《시행령안》을 폐기하고 선체를 시급히 인양하여 진상을 밝히기를 요구하였다.

남조선 종교인이 괴뢰당을 단죄

남조선의 천주교 계주교구장 강우일주교가 16일 《세월》호참사 1년을 계기로 열린 종교의식에서 대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괴뢰당을 규탄하였다.

그는 《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되었지만 아무도 납득할만한 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침묵하지 말자

남조선 종교인이 괴뢰당을 단죄

《정부가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를 무력화하는 《시행령안》을 발표한것은 사실상 진상규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난하였다.

《정부가 《보상법》이 뭐니 하면서 마치 유가족들이 돈이아기를 먼저 꺼낸것처럼 민중여론을 오도하는것은 유가족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언명하였다.

진실은 밝히기 위해 침묵하지 말자

남조선 종교인이 괴뢰당을 단죄

《세월》호참사보다 더 큰 재앙이 찾아오지 말자고 호소하였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침묵하지 말자고 그는 호소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일본의 역사외곡저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선언



일본의 역사외곡저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선언하는 남조선인민들

남조선 《KBS》방송에 의하면 남조선의 아시아 평화와 역사교육단체가 8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일본의 역사외곡저지를 저지시키기 위한 서명운동을 벌일것을 선언하였다.

그들은 일본정부의 조선학 교차별정책에 따른 오사카시 당국의 교육보조금지금중지, 오사카시당의 일본군성노예단행에 대한 방언에 이어서 당국이 오사카인민박람회를 철회하려 하고있는데

조선반도를 전쟁화약고로 만드는 범죄적망동

조선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지역이 전쟁화약고로 전변되고있다.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의 무분별한 침략책동으로 언제 핵전쟁이 터질지 모를 엄청난 위기가 조성된 가운데 남조선에 고교도미싸일방위체계《싸드》를 배치하려는 미국의 책동으로 하여 긴장각화가 극도로 첨예화되고있다.

미국은 남조선에 첨단무장장비를 끌어들이면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선제타격준비를 갖추는것과 함께 저들의 세계지배전략에 따라 전략적경쟁자였던 중국과 로씨야를 제압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 보려 하고있다.

뿐만아니라 《북조선의 핵무기소형화》에 대하여 벽적 떠들썩한 우리들 입살자위 위한 《작전계획》들을 세우고 대대적인 무력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것은 미국이 조선반도에서 새 전쟁의 불꽃을 튀기려 하고있다는것을 명백히 폭로해준다.

위협천만만 군사장비들을 끌어들이며 대국들의 리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조선반도를 대국들의 각축전장으로 만들려는것이 미국의 궁극적목적이다.

남조선은 이미 열강들의 각축전마당으로 되었다.

세계언론들이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제 1차 세계대전전야의 정세와 유사하며 1960년대의 카리브해위기때처럼 쉽게 해소될수 없는 사태가 조성되고있다고 분석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인류에게 대재앙을 불러왔던 제 1차 세계대전과 같은 사태를 동북아시아지역의 조선반도에 몰아오는 미국의 범죄적책동을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

민중을 책임지지 않는자들이 뼈저리게 후회할 때까지 싸워이길것이다



《세월》호참사 1년을 맞으며 남조선 각지에서 반《정부》투쟁 전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침묵하지 말자

남조선 종교인이 괴뢰당을 단죄

남조선의 천주교 계주교구장 강우일주교가 16일 《세월》호참사 1년을 계기로 열린 종교의식에서 대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괴뢰당을 규탄하였다.

그는 《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되었지만 아무도 납득할만한 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진실은 밝히기 위해 침묵하지 말자



남조선 종교인이 괴뢰당을 단죄

진실은 밝히기 위해 침묵하지 말자

남조선 종교인이 괴뢰당을 단죄

남조선의 천주교 계주교구장 강우일주교가 16일 《세월》호참사 1년을 계기로 열린 종교의식에서 대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괴뢰당을 규탄하였다.

그는 《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되었지만 아무도 납득할만한 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2018년 월드컵경기대회를 아시아지역예선 2단계경기 조구성

국제축구연맹 2018년 월드컵경기대회 아시아지역예선 2단계경기 조구성을 위한 추첨식이 14일 말레이시아의 푸알라 풀푸르에

최근 과학기술소식

지진모의장치 개발

최근 어느 한 나라에서 강한 지진을 모방할수 있는 지진모의장치를 개발하였다.

최대출력으로 가동할 때 7bar(바르)의 지진을 모방할수 있는 이 장치의 기본사명은 설계단계에 있는 건물들의 견고성을 평가하는것이다.

장치를 리용하여 150층짜리 고층건물에 대한 검사도 진행할수 있다고 한다.

즉 1:40의 정확한 모형건물을 건설하여 검사할수 있다.

새로운 지진모의장치가 개발됨으로써 구조물의 안전성을 높일수 있게 되었으며 지진에 견딜수 있는 건물건설수상이 성과적으로 실현될것이라고 한다.

심장마비와 뇌졸중의 발생위험성을 평가하는 프로그램 개발

어느 한 나라의 학자들이 최근 심장마비와 뇌졸중의 발생위험성을 평가하는 특수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 프로그램에 환자의 나이와 피속의 콜레스테롤수치, 해로운 습관, 만성질환, 국적 등에 대한

세계언론들이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제 1차 세계대전전야의 정세와 유사하며 1960년대의 카리브해위기때처럼 쉽게 해소될수 없는 사태가 조성되고있다고 분석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인류에게 대재앙을 불러왔던 제 1차 세계대전과 같은 사태를 동북아시아지역의 조선반도에 몰아오는 미국의 범죄적책동을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

세계언론들이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제 1차 세계대전전야의 정세와 유사하며 1960년대의 카리브해위기때처럼 쉽게 해소될수 없는 사태가 조성되고있다고 분석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인류에게 대재앙을 불러왔던 제 1차 세계대전과 같은 사태를 동북아시아지역의 조선반도에 몰아오는 미국의 범죄적책동을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

세계언론들이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제 1차 세계대전전야의 정세와 유사하며 1960년대의 카리브해위기때처럼 쉽게 해소될수 없는 사태가 조성되고있다고 분석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인류에게 대재앙을 불러왔던 제 1차 세계대전과 같은 사태를 동북아시아지역의 조선반도에 몰아오는 미국의 범죄적책동을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

세계언론들이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제 1차 세계대전전야의 정세와 유사하며 1960년대의 카리브해위기때처럼 쉽게 해소될수 없는 사태가 조성되고있다고 분석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인류에게 대재앙을 불러왔던 제 1차 세계대전과 같은 사태를 동북아시아지역의 조선반도에 몰아오는 미국의 범죄적책동을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